

러시아 한인 작가의 민족 정체성 연구

- 아나톨리 김, 알렉산드르 강의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최 인 나

차례

국문 초록

1. 들어가며—고려인의 정체성
2.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전개
3. 아나톨리 김의 「나의 과거」, 세계인
4. 알렉산드르 강의 자전적 에세이, 한국흔의 탐색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 초록>

이 글은 러시아 한인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되는 아나톨리 김과 알렉산드르 강의 자전적 소설과 수필을 살펴, 러시아 한인 작가의 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러시아 한인 1세대 작가들은 대부분 러시아령 극동 연해주로 건너가 정착한 초창기 이후 한인들의 삶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당시 겪은 간고한 생존 내력,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나타난 한인촌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이와는 달리, 구소련 영토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 한인 작가들은 주로 민족의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과거를 테마로 삼은 작품을 창작, 러시아 영토에 있는 한인 사회의 운명이나 차후 발전의 경로에 대하여 사색하고 이를 작품에 담아냈다. 또한, 그들은 재소 한인들의 문학을 분석하여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나톨리 김과 알렉산드르 강과 같은 작가들은 자신의 자전적 소설 및 수필 속에서 민족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며, 러시아 한인 사회의 역사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다른 국가의 한인 사회가 생성된 역사와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러시아 한인 작가들 대부분은 이미 자기들의 모어가 되어 버린 러시아어로 작품을 창작 발표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길에서 한국에 뿌리를 두는 작가로서 계속 남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닐지언정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느끼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국 문화(유전적인)와 러시아 문화라는 두 문화의 혼합은 그들이 서양과 동양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들을 비교하여 그 특징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냄으로써 그들의 문학 창작의 소재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

최근 들어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신적, 예술적 가치 계승의 문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 한인 작가, 아나톨리 김, 알렉산드르 강, 자전 소설, 「나의 과거」, 「보이지 않는 섬」, 민족 정체성

1. 들어가며-고려인의 정체성

러시아 한인¹⁾ 작가의 문학 작품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의 정체성, ‘고려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문제이다.²⁾ V.S.한(韓)은 고려사람의 본질에 대해 “고려사람이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거주하는, 복합적인 문화적 유전자 풀(pool)로써 특징지어지는, 한국, 러시아, 소련, 중앙아시아 및 유럽 문화의 전통적 요소들을 자기 내에 포함하는, 러시아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유라시아 한인들”³⁾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러시아 한인 본래의 민족 정체성은 다른 성격에 동화되고 변형되는 과정의 진척도가 매우 높고, 이 과정과 더불어 재소 한인들의 새로운 민족 문화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문화 속에는 한국 문화, 유럽 문화, 러시아 문화, 소련 문화 및 중앙아시아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사람 1세대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아주 정착한 세대로, 러시아 제국에서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더 이후의 소련 시대 러시아에서의 새 생활환경에 가능하면 빨리 익숙해지고자 노력하였다. 이 세대는 러시아어를 배웠고, 러시아 정교(正敎)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벼 대신에 밀을 심기 시작했고, 처녀지를 개간하였으며, 파종을 위해 밭을 일구며 러시아 농가에서 살았다. 2세대는 러시아 극동의 새 농경지에서 나온 수확물을 다 누리기도 전에 이전 세대가 겪었던 정착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했다. 즉,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새로이 적응해야 했다. 2세대는 1세대가 정착했던 연해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전혀 새로운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들 세대는 갖가지 시련을 겪더니면서 그 자녀의 세대, 즉 제3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3세대 역시 다시금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각국의 생활환경과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등 사회문화적 상황이 국가마다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자 김 게르만은 「고려사람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고려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밝힌 대로, ‘고려사람’은 한민족이며, 한반도의 ‘진짜’ 한민족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의 한민족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전적 뿌리가 같고, 같은 인종유형이며, 민족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고려사람은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사고 방식과 민족 정체성, 언어, 관습, 음식, 그리고 외모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 고려사람’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한국 사람(남한 사람)도 조선사람(북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남,북한 사람과는 “다른 한민족”인 것이다. 고려사람들, 특히 4, 5세대 고려사람에게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마찬가지의 외국어가 되어 버렸고, 어릴 때부터 “러시아의 민담을 들었고, 학교에서는 유럽 언어를 배웠으며, 유럽의 문학과 음악, 예술을 배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도 러시아식”이며, “성(姓)만 한민족”이라는 지적이다.⁴⁾

1) 러시안 한인은 ‘재소 한인’ ‘고려인’ ‘고려사람’ ‘조선사람’ 등으로 불리는데, ‘고려사람’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CIS에 거주하는 한인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인’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칭이다. 여기서는 ‘재소 한인’ ‘고려인’ ‘고려사람’ 등을 같은 개념으로 병용한다.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pp. 33-35 참조.

2) 예를 들어 한 V. S.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 모색에 있어 어떠한 전통을 갱생시키고 있는가?」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한다. 1) 민족을 이루는 실제적 주체로서의 고려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 고려사람의 민족적 간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 고려사람이 민족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존재하는가?(한 V.S. 감수, <‘10년 후-우즈베키스탄 한인문화센터연합 창설 제10주년에 즈음하여>, 타시켄트. 서울,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한인문화센터연합, 2001, 49쪽)

3) 같은 글. 50쪽.

이와 같은 고려사람의 정체성 인식은 러시아 한인 사회의 민족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재러 한인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담아 보이는 정체성 문제도 대부분 김 게르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전개

재소 한인 문학은 주로 카자흐스탄 영토에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한인 작가들만이 자신들의 작가 조직을 가졌고, 한글로 쓴 문학 작품도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수식출판사’와 『레닌 기치』(『고려일보』)를 통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스크바에서도 한글로 쓰인 책이 발간되었으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상적, 정치적 내용이나 역사적, 지리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재소 한인 문학은 러시아 문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한국 문학(역사적 관점에서의 재소 한인의 고향과 관련되는 문학)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소련 문학 전반이 그러하듯, 재소 한인 문학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반을 두고, 1920-30년대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당시 러시아 극동에서 발행되던 한글 신문 『선봉』과 한인사범대학, ‘고려극장’ 등의 문화기관도 카자흐스탄으로 이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이에 힘입어 러시아 한인 문학은 카자흐스탄 문단의 일부가 되어 새로이 생기를 찾았다. 한인 작가들은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산하에서 한인 작가 부서를 이름으로써 결집하였고, 『레닌 기치』 편집부가 크즐오르다에서 알마아타로 옮아간 후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회원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산하 한인 작가 부서는 1960년대 중엽 당시 크즐오르다시(市)에 소재하면서 공화국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고 있던 『레닌 기치』 편집부를 기반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 부서 창설자이자 최초의 부서장을 지낸 김준은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그는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 부서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엄중한 심사를 거쳐 『레닌 기치』에 게재했다.

1978년 『레닌 기치』 편집부가 알마아타로 옮겨가자 이 부서는 자동 폐쇄된다. 이는 연로한 김준이 알마아타로 이사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4년 후 ‘고려극장’ 수석 감독 명동욱에 의해 부활하였다. 명동욱에 이어 한진이 부서 대표를 맡은 후 다시 활동적으로 기능 수행을 해나가기 시작,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건물의 한 사무실에 한인 작가들이 모여 창작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했으며, 이런 모임이 있는 날을 ‘문학 화요일’이라 불렀다. ‘문학 화요일’은 재능 있는 새 작가들 등장에 큰 역할을 하였으니, 이를 통해 등장한 작가로는 송 라브렌찌, 박 미하일, 강 알렉산드르, 리 스타니슬라브, 강 게느리에타 등이 있다. 이들 신진작가는 러시아어로 작품을 창작했지만, 한진이 이끄는 한인 작가 부서는 작가들을 창작 언어로 차별하지 않았다. 이때 한글 작품집 5권이 출간되었는데,⁴⁾ 이는 카자흐스탄 한인 문단의 기념비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여름 알마티에서 한국문인협회 주최로 세계 각국의 한민족 작가 100여 명이 참가한 ‘해외 문학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대회를 통해 고려인 작가들은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한인 작가와 교류하게 되고 고려인 문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 행사 후, 카자흐스

4) 김 게르만, 「고려사람의 고백」,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pp. 27-28.

5)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합집 『오늘의 벗』(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1990), 합집, 『꽃피는 땅』(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1988), 합집, 『행복의 고향』(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1988), 리진 시집 『해돌이』(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1989), 『한진 히곡집』(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1988).

탄 한인 작가 동맹 부서장은 작가 미하일 박이 맡았고, 1997년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양원식⁶⁾이 맡아 활동하였다. 이 시기 『레닌 기치』 문학예술부는 한글로 창작한 고려인 문학 작품을 ‘문학면(面)’ 특별 기고란에 게재하여 고려인 한글문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 일은 한인 작가 양원식이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문학은 사람들을 고결하고 강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최고의 선구적 관념들로 고무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소련 한인 문학은 그러한 고결한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고, 많은 점에 있어 자민족의 정신문화 발전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삶과 창작 활동의 공간과 관련된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련 영토에 거주하던 한인 작가들에게는 창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 즉 그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존재치 않았다.

둘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문 비평가들이 없었다.

셋째, 정상적인 창작 과정에 언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한국어로 글을 쓰긴 했지만, 그러한 작품들을 읽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 아무리 잘 쓴 작품들이라 해도 전문 번역가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독자들은 접할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인정이 없이는 어떤 작가라 해도 원만한 창작 활동을 해나가기가 힘들다.

이 밖에, 한인 작가들에게는 러시아 작가들이나 카자흐 작가들이 누려 왔던 일반적인 권리 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인 작가들에게는 ‘소련’이라는 수식어 없이 ‘고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인 작가가 이 수식어를 쓰지 않으면 검열을 통해 민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다룬 것으로 취급되었다. 한인 작가들에게는 오로지 ‘소련의 현실을 찬양할 권리’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한인 작가들은 악역에 해당하는 각종 인물에게 어떤 성(姓)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해 왔다. 한인 작가가 쓴 소설 속에서 악역을 맡은 등장인물이 러시아 성이나 카자흐 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작품은 러시아 민족이나 카자흐 민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한인 작가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극도로 조심해야만 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인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그 어떤 캐릭터를 창조한다든지 사회적, 사상적 마찰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한인 작가의 작품들에는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테마가 주로 다루어졌다. 말하자면, 한인 사회가 당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인 작가들도 눈치를 보며 창작을 해온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소 한인 작가들 대부분이 직업 작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레닌 기치』 편집부 문학 담당 직원으로, ‘고려인 극장’ 문학부 또는 학교나 다른 신문의 편집부, 문화 회관 등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근 카자흐스탄 문단에서 러시아어를 쓰는 한인 작가들이 적지 않은데, 미하일 박, 블라디미르 김, 빅토르 김리, 알렉산드르 강, 스타니슬라브 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중 어떤 작가는 어떤 언어로 창작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또 어떤 작가는 언어야말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힌다. 언어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이들의 의견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의 성격, 행동, 느낌, 심리, 습관의 아주 세세한 측면들은 작품 주인공이 쓰는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6) 양원식은 2006년 5월 급사(急死)하였다. 최근 10~12년 사이에 연선평, 한진, 강 계느리에따, 박일, 강태수가 세상을 떠나, 현재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한인 작가 부서에는 단 4명이 남게 되었다.

써 완벽하게 베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다. 그러나 현재 독립국 가연합 한인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자신의 모어로 여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창작 언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이분법적 또는 단호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아나톨리 김의 「나의 과거」, 세계인

아나톨리 김⁷⁾은 1939년 카자흐스탄 세르기예브카 마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로, CIS 고려인 문학뿐 아니라 러시아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⁸⁾

아나톨리 김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나는 1939년에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민족 이주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켜 갔다. 기차가 허허벌판에 멈추어 서서 사람들을 다 내려놓곤 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카자흐 사람들이 큰 도움을 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한인들은 민족 문화와 모어를 잊어 버렸다. 나의 부친은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이셨기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 러시아어로 대화가 오갔다.⁹⁾

아나톨리 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 후의 청년 시절에 대하여 자신의 자전적 소설 「나의 과거」¹⁰⁾를 통해 회상한다. 이 소설은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 부분에서 작가는 소련의 한쪽 끝(즉 연해주)에서 다른 쪽 끝(즉 중앙아시아)으로 이주하게 된 그의 가족이 어떠한 삶의 공간에서 살게 되어 왔는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한다. 나중 부분에 작가는 삶의 여러 경험, 문학적 경험, 직업 작가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아나톨리 김은 이 작품에서 자기 가족의 족보 이야기로써 서술을 시작, 조부(祖父)가 어떻게 러시아에 오게 됐는지, 부친과 다른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일에 관해 서술한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나는 스스로의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그가 어린 시절 처음 본 나라의 풍경과 지세이며, 그렇게 형성된 정서는 나중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다. 정서는 세상의 다른 정경 및 장면들로써 확대되고 보충될 뿐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태양 빛에 그을린 끝없는 광야의 나라 카자흐스탄이 그의 세계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는 매우 여러 가지의 세계관이 복합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7) 1905년 모스크바 미술대학에 입학한 그는 졸업 1년 앞두고 중퇴하고, 1971년 문학대학 통신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문학대학 졸업 후 탑 건설을 위한 기중기를 다루는 기사, 가구 공장 기술자, 영화 제작 기술자, 무대장치가, 예술 부문 감독관 등으로 일했다. 1973년 단편 「수채화」로 러시아 문단에 데뷔한 그는, 이후 백여 편의 중·단편과 4편의 장편을 발표한다. ‘톨스토이 문학상’(2005)을 비롯하여 ‘올해의 작가상’(1978) ‘황금펜 상’(1982) ‘러시아문학상’(2000) 등을 수상한 그의 작품은 영어·한국어·중국어·불어·일어 등 2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997년 『아나톨리 김 전집』(6권)이 출간되었다.

8) 아나톨리 김은 그의 자전적 소설과 수필 등을 통해 성장 과정과 문학적 삶을 피력하고 있다(아나톨리 김, 김현택 역, 『초원, 내 푸른 영혼』, 대륙연구소, 1995. 참조).

9) 김 아나톨리. 「나는 불사(不死)에 대해 쓴다」, 스베틀라나 루덴코가 청한 인터뷰.

10) 김 아나톨리. 「나의 과거」, 『10월』, № 2, № 4, 1998.

것이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의 세계주의는 나의 가장 이른 시기의 인상들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힌다.¹¹⁾

아나톨리 김은 어린 시절부터 그가 속한 한인 사회, 한민족은 그들이 살던 곳에서 주인이 못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¹²⁾ 그가 회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불가능에 대한 이러한 나의 어린 시절의 느낌에는, 농민이었지만 끝끝내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나의 조부의 비애가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의 속마음에 역시, ‘내 땅’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본다. 민족이 이주민으로서 갖던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그 무엇인가를 향해 돌진하여야 했다. 나의 조부 김기영이 돌아가시면서 지니고 계셨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야만 했으며, 삶의 방향을 돌이켜, 나에게 자신감과 정의감을 줄 만한 삶 쪽을 택해야 했다.¹³⁾

1948년 재소 한인의 유배 시기가 끝나고 주거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자, 아나톨리 김의 부모는 다른 한인들이 그랬듯이 바로 극동으로 돌아갔다. 캄차카에 도착한 그의 가족은 우수리지방으로, 그리고 사할린으로 이동했다. 후에 그의 가족은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고, 아나톨리 김은 그곳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온다. 한편, 극동으로 이사한 후, 한인 학교가 개설되자 아나톨리 김의 부모는 곧 이 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와 공통되는 옛 뿌리를 지니는 사람들의 삶과 좀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다.

‘자연적인’ 한인들과 만나면서 나는 이주민 제2세대로서 그들과의 친분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맨 처음부터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한국말을 거의 몰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벽은, 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나의 삶이, 나의 한국 어린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흘러갔다는 점이었다. (중략) 내 개인의 운명은 이 오랜 정신적 본질 밖으로 나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줄기가 되는 민족적 본원은 사람이 변덕스러운 운명의 의지에 의해 어느 곳에 처하게 되었든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복돋아 준다.¹⁴⁾

그러나 위에 보인 대로, 작가는 이곳에서 만난 ‘자연적인’ 한인들과 내적으로 가깝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반면, 작가는 그곳의 자연과 풍경,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적잖은 주의를 돌린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작가로 태어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거기서 나는, 곁으로 보기에는 마치 감자처럼 볼품없는, 그러나 민족의 삶의 에너지와 선량한 희망으로 꽉 찬 러시아의 시골 생활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회색을 띠는, 목질(木質)을 연상시키는 러시아 시골에서 나는 그 민족의 정신을 파악할 것이었고, 그 온기를 받아들이고 위대한 러시아어의 뿌리를 느끼고 사랑할 것이었다. 러시아 작가가 내 속에서 태어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그 극동의 시골 마을 로스꼬쉬에서이다.¹⁵⁾

11) 위의 작품. pp.2-4.

12) 위의 작품. p.5.

13) 위의 작품. p.5.

14) 위의 작품. pp.7-8.

15) 위의 작품. p.18.

아나톨리 김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병약한 아이였으나, 그의 가족이 사할린섬으로 이주해 오고 나서 그는 병을 앓지 않게 되었다. 그의 병이 나은 것에는 그의 모친이 그에게 영계와 함께 끓여 주던 인삼의 효험도 적지 않았다. 작가가 자신의 글의 1개 장(章)에서 인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어머니가 이 삼 뿌리를 어떤 늙은 사냥꾼한테서 사셨다. 이 사냥꾼은 극동에 살던 한인 들에게서 인삼 찾는 기술을 배운 이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뿌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노력 덕에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혈통적 뿌리의 먼 발상지가 베푸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부터 직접 얻은 것이기도 하다.¹⁶⁾

그는 어린 시절의 병치례가 치유된 데는 어머니의 사랑뿐 아니라, “혈통적 뿌리의 먼 발상지가 베푸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부터 직접 얻은 것”이기도 하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게 된다. 그곳 한인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내적 동질감, 혈연적 뿌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그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깨달아야만 했고”, 그의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고민해야 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이다.¹⁷⁾

아나톨리 김이 작가가 되겠다고 작심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모스크바에서 온 사할린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소련 사회에서 제일 좋은 모든 것을 지닌, 소련 인텔리겐치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젊은 교사들 덕분에 아나톨리 김은 러시아 문화와 그 정신적 유산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모스크바 미술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리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결국, 그는 모스크바에서 30년 이상을 살게 되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자연의 영(靈), 즉 광야와 산, 대양의 영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의 청년 시절은 모스크바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의 나머지 부분 전체가 모스크바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아나톨리 김은 공부를 마치고 미술가가 되고자 모스크바에 왔으나, 바로 그 모스크바에서 작가가 되도록 하는 인식의 길이 열린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이,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잘 연마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 갔다. 나로 하여금 단순히 삶의 무지갯빛 곁면만을 아는 작가가 아닌, 삶의 속 모습까지 아는 작가가 되도록 말이다. 한마디로 나는 삶의 가장 어두운 밑면과 삶의 가장 차갑고 투명한 꼭대기들의 가르침을 거쳤다.¹⁸⁾

아나톨리 김은 「나의 과거」 후반에서 사랑과 결혼, 가족 등 인간의 삶에서 일정한 가치를 갖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저서들과 작품 활동에 대해 진솔하게 피력한다. 그의 “새로운 ‘인생 철학’은 결혼과 가정의 행복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가 갈구하던 작품 창작은 작가 자신 “한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는 서둘러 결혼을 하고, 그 후 10개월이 지나자 그에게 첫 아이가 태어난다. 문학의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도, 집도, 발표된 작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젊은 작가는 아내를 얻어 모스크바의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셋집들을 전전하면서 가정생활을 시작했고, 수위(守衛) 혹은 건설 현장 야간 난방책임자 등 단기적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약소

16) 위의 작품. p.23.

17) 위의 작품. p. 26.

18) 위의 작품. p. 34.

한 돈을 벌곤 했다. 당시 시와 소설을 쓰기도 했으나 어디에도 발표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나톨리 김은 이 시절이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책상에 앉아 일하던 자신이 가장 작가다웠으며, 그 후로는 “창작 작업 그 자체에서 그만큼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다.¹⁹⁾

아나톨리 김은 자신의 작가 수업이 가족이나 친족들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그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한인’이기 때문에 러시아 작가가 되려는 그를 별로 미더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나톨리 김은 문인집단인 작가 동맹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해 고리키문학대학에 입학한다.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아나톨리 김은 예전처럼 계속 많은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작품을 발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가 창작한 작품은 대부분 단편이었는데, 단편들을 통해 그가 발견한 것은 문학 작품 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마나 좋은 소재, 심오한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었다. 작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정신 현상에 부응하는 자신의 언어라는 것이다. 1973년 1월 『오로라』지(誌)에 처음 실린 단편 소설들의 장점으로 평가받은 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문체”였다. 그는 “그의 육체적 존재 속에는 러시아적인 세포가 한 개도 없”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운명적인 장애가 될까 봐”²⁰⁾ 걱정했었는데,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나톨리 김은 『푸른 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작품은 ‘네야또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창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한인 가족을 이끌고 “그 지방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먼 이방 족속을 대표하는 자”로서 숲이 우거진 랴잔 지방에 처음으로 나타나 창작 생활을 시작한 그 시절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그는 “러시아어 속에서 자기가 진정한 탄생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마을에서”라고 고백, 그가 “러시아 작가로서 존재하게 된 근원이 거기에 있다”²¹⁾고 밝힌다.

「나의 과거」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예술적 언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이라는 장(章)에서 내보인다. 여기서 작가는 자신이 러시아 작가인지 한인 작가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사색한 내용을 진술한다. 그는 1989년 가을 그가 처음 방문한 조상의 고향, 그리고 그의 문학은 한국 문화와 아무 관련도 없다는 어느 한국 문인의 지적에 대한 소감을 서술한다. 러시아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를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조국이 되는 나라에서도 그를 두고 이방인이고 외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가 밝힌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진술이다.

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 문학 전통을 가지고 볼 때도 그려하고 동양적 미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나는 작품 속에서 러시아인의 정신적 본질이나, 한국인의 정신적 본질, 혹은 그 어떤 다른 소수 민족 사람의 정신적 본질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비록 내 책의 등장인물들로서 러시아인도 있었고, 한인도 있었고, 독일인, 미국인, 일본인 등 여럿이 있었지만 말이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민족적 사고방식이나 사회적 사고방식을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안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돌려 왔는가? 이를 말로써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나는 인간 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을 통해 인간 안에 심어졌고 길러진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어떤

19) 위의 작품. p. 50.

20) 위의 작품. p. 58.

21) 위의 작품. pp. 68-69.

언어에 속한 것으로서 음운들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초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있어 한 가지인, 인간 영혼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언어로써 이 땅에 살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마음 속 감정을 표현해 왔다. 선한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말이다. 러시아어이든 혹은 다른 어떤 언어이든 나에게 있어서는 일단 이는 태초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었다. 내 작품들의 어조는 전 세계적인 고독에서 오는 슬픔으로써 채색되어 있다. 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 아마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왜냐하면, 나는 전 인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민족의 명칭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전 인류의 민족 작가가 되었다.²²⁾

젊음은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그 어떤 하나에 바쳐야 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문학이 시(詩)를 통해서 나에게 물려왔고, 그것으로 향한 길은 그림을 통해 놓여 있었다. 한편 지금도 나는 문학 속에서 미술가의 입장으로 글을 쓴다. 나는 보편적인 문구를 피하고, 색감의 조화를 추구한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옛 족보 책들을 통해, 내가 가장 위대한 한국 중세 시인 중 한 사람인 김시습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보세요, 옛날의 정신문화 사조가 지하로 사라져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 속에서 분출되었지 않은가.²³⁾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나톨리 김은 자신이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러시아 작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가 스스로 민족적 전통에 충실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동류의 인간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과 동류라고 느끼는” 경우와는 달리, 이 작가는 자신 속에서 두 가지의 본질, 두 가지의 문화를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는 민족 간의 경계를 극복하고 삶 자체와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세계인’의 시각에서 본다. 전 인류가 공통으로 갖는 재산인 ‘말’에만 기반을 두고서. 달리 말하자면, 유전적(역사적) 기억의 결과로서 습득된 한국 문화, 그리고 이 작가의 성장과 인성 형성이 이루어진 러시아 문화라는 두 문화가 그에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의 정신 문화적 유산이 풍부해지며, 그의 안에서 이 두 문화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아나톨리 김에게 있어 러시아어는 모어이며 나아가 그가 쓰는 작품들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바대로, “옛날의 정신문화 사조(思潮, 한국의 혈통)가 지하로 사라져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 속에서 분출”된 것이다.

4. 알렉산드르 강의 자전적 에세이, 민족혼의 탐색

러시아 한인 제3세대 작가 알렉산드르 강(본명 강경일)은 1960년 평양에서 출생했으나, 한 살 때 고려인 어머니와 함께 추방당한 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그는 알마아타 국립물리수학학교, 모스크바 전자공학대학과 고리키문학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에

22) 위의 작품. p. 74.

23) 아나톨리 김, 「나는 불사(不死)에 대해 쓴다」, 스베틀라나 루덴코가 청한 인터뷰.

「게임의 법칙」으로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단편 「박사」를 비롯하여 중편 「가족의 시대」(1992) 「의상 담당자」(1993)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꿈」(1994), 그리고 수필 「보이지 않는 섬」 「귀가(歸家)」,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는 러시아 문학 콩쿠르 ‘새 이름들’(모스크바, 1994)을 비롯하여 유럽영화아카데미콩쿠르 ‘NIPKOW PROGRAM’(베를린, 1999),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공모(2003)에서 시나리오로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 작가 연맹 회원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여러 출판물과 국제 출판물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강이 그의 작품에서 내보이는 주인공은 단편이든 중편이든, 수필이든 희곡이든 어떤 장르에서든,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 설 곳을 잃고 뿌리와 정신적 입지(立地)를 잃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 주인공은 이방인이 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독립국가연합 각국 한인들의 초상에 다름 아니다. 알렉산드르 강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당대 한인 사회의 운명, 재소 한인의 운명에 대하여 사색하는 모습을 그려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섬」을 비롯하여 「귀가(歸家)」 「우리의 삶이자 운명인 고려일보」 「박수의 출현」 「한 굽이의 경로 혹은 역사」 「햇빛 찬란한 꿈」 등은 그 한 예이다.

「보이지 않는 섬」에서 알렉산드르 강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한인 사회가 1세기 이상 존재해 온 것을 주제로 삼아, 여러 관점에서 이를 고찰해 보인다. 이 작품은 시대에 따라 3부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본 재려(재소) 한인의 현실, 제2부에서는 한인 사회에 속한 사람의 실존적 과거(공허와 쓰라린 실패의 기억, 한인 사회의 존재에 대한 증명 및 정당화 시도로서의 현대 한인 작가들의 문학),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실존적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 영혼의 장래로의 이동이 다루어진다. 여기서 영혼이란 그 어떤 테두리, 말하자면 민족적, 시간적, 지리적, 역사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²⁴⁾

이 작품 첫 부분에서 작가는 러시아에 존재해 온 한인 사회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재소 한인들은 자신들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영토를 가지지 못했고, 현재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도 십중팔구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알렉산드르 강은 여기서, 작가 자신이 겪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민족적 실존주의’ 개념으로서 ‘영원히 객(客)일 수밖에 없는 자의 자각(自覺)’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아래의 인용은 이를 잘 드러낸다.

영원히 객일 수밖에 없는 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민족의식에 있어 원칙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느낌은 러시아 한인들의 존재에 스며들어 왔고, 현재에도 스며들고 있으며, 미래에도 대를 이어 가며- 스며들 것이다. 타지(他地)에 처한 한인은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 민족정신과 자동적으로 결별하게 되었으며, 이를 한인 스스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한인은 러시아 문화의 강한 영향 하에 처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문화는 물론 한인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였다. 그것은 한인뿐만 아니라 당시(현재에는 와해된) 소련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민족 자의식의 변형을 계속 진행시킨 것이 소련의 국가 정책이었다. 불의로 점철된 과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픈, 복수하고픈 감정이 일어나는가? 절대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러시아 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한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남의 집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한 객(客)으

24) 이 작품의 각 부는 독립적 수필 작품으로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드루쥐바 나로도브(민족 간 우애)」(모스크바, 1994.10), 『고려일보』(알마아타, 1993.2), 'World Literature Today'(Oklahoma, 3, 1996) 등의 매체에 실렸다.

로서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²⁵⁾

한인 사회의 드라마틱한 과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의 발전의 수준에 흔적을 남겨 놓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학교를 마치고서 러시아에 남았다. 러시아 한인들의 교육 수준은 형식적으로는 다분히 높다. 이방인으로서의 한인은 꼭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지런함(일 중독 증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고등 교육을 받고자 힘썼다. 한편, 현재 한인들에게 있는 발간물과 여타 대중 정보 매체, 극단 및 악단은 구소련 영토에 매우 적은 데다, 그 수준은 심할 정도로 낮다. 그 이유는 많지만, 가장 주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모어(母語)인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이다. 구세대와 신세대에 걸친 한인 사회 대표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르는 데다가 러시아어도 그리 썩 잘 아는 게 아니다. 양 언어의 혼합 현상이 일어난다. 한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언어 혼합 현상은 실제로 볼 때 무언어(無言語) 현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에서 짧막한 한인들의 이름들이 내걸린 몇 안 되는 문화 예술적 소산은 유전학적, 문화학적 혼혈의 결과로서, 한국 피와 러시아 피의 섞임이다. 그렇게 섞여야만 그나마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학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다.²⁶⁾

알렉산드르 강은 재(在)러시아 한인과 한인 사회는 구소련이라는, 그리고 러시아라는 사회상황에 놓이면서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겪어야 했고,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자들의 생존 경로도 매우 독자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만큼 러시아 한인 사회와 한인들이 감내해온 역사적 질곡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 ‘우리 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상징되는 정신적 지지가 있게 마련인데, 러시아 한인에게는 “민족의 지지”라는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지지에 대한 느낌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재러 한인들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민족의 권리를 요구할 만한 그 어떤 동반자”도 없이 각자가 혼자 역경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분산성(分散性), 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합법적인 영토와 언어를 가지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상황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오류와 상실이 있는 가운데에서였지만, 그래도 정신과 의지의 견고함은 더해 갔다.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라는 현실 상황에서 한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육체적, 심리적, 세계관적 고립성으로 차이를 내보였는데, 그것은 이상하면서도 유익한 것이었다. 요컨대, 알렉산드르 강은 이 작품을 통해, 재러 한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소수 민족 집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단지 공동체일 뿐이고, 그것도 광대한 영토 여기저기에 흩뿌려진 개개인들의 형식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²⁷⁾

「보이지 않는 섬」 2부에서, 작가는 전통적 민족 명절을 예로 들어 재소 한인 사회의 특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제시한다. 재소 한인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날에 모이는데, 여기서 개인적 특질과 민족적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존재 양식과 존재 수단, 사고방식, 또한 그들을 항상 동반하는 침묵에서는 표현되는 바가 매우 많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절제의 미덕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한인들을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한 처지에서 그들을 표면적으로만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침묵이 바로 이 동양적 절제에서 비롯한다고들 설명한다. 그리고 한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아 이어 내려온 이 고요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 본질과 동시에 민족적 본

25) 강 알렉산드르, 「보이지 않는 섬」. pp.6-7.

26) 위의 작품. p. 9.

27) 위의 작품. pp.12-13.

질이 확연하게 표명된다.²⁸⁾

이 작품 3부에서, 알렉산드르 강은 재소 한인의 문학에 관해 기술하는데, 그들의 작품에 민족의 기억이 어떻게 표명되는지의 문제를 거론한다. 그는, 겐나지니 리의 「나는 그것을 기억 한다」, 한진의 「그곳을 뭐라고 불렀던가」, 라브렌찌 송의 「여름을 계속해서 회상하라」, 블라디미르 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연 잊힐 것인가」, 안드레이 한의 「고기가 잘 잡히는 곳」, 블라디미르 림의 「한 줌의 대양(大洋)」과 같은 작품들을 고찰한다.²⁹⁾

위의 작품들을 분석한 알렉산드르 강은 재러 한인 사회를 예로 들어, 이민족의 기억 내용을 다음의 사항들과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①서정적 경험으로서의 기억, ②꿈으로서의 기억, ③모어(한국어) 및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전통, 민족 문화, 분위기, 세계관으로서의 기억, ④계속적인 고통으로서의 기억(좌표들의 예술적 체계 속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공허로서의 기억³⁰⁾ 등이 그것이다. 알렉산드르 강이 나열한 거의 모든 사항 속에서 작가가 자신의 기억 혹은 그 기억을 불러일으킨 사물에 매료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자신의 회고적 시선을 저세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거둘 수 없다는 것인데, 지점은 바로 그러한 작가로서 그가 성장하는 지점이다.³¹⁾

알렉산드르 강은 「귀가」라는 수필에서 러시아어로 쓰는 한인 소설의 운명이라는 문제를 거론한다.

러시아어로 쓰이는 한인 소설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를 쓰는 자라면 누구나, 모어로서의 러시아어를 옹호한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가 한국 작가인지 러시아 작가인지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된다. 1세대 문학가들에게는 다분히 확고하게 굳어진 다음과 같은 견지가 존재한다. ‘한인 작가는 한인들에 대해서, 한국어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자식들도 러시아어로 읽고 쓰기를 시작했으며, 그러한 자식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³²⁾

알렉산드르 강은 그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수필 「우리의 삶이자 운명인 ‘고려일보’」의 지면들을 빌어 대부분의 재소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러시아화(化)한 가정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즉, 러시아어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어로 러시아 영화를 보며, 또 러시아어를 통해서 세계 문학을 접해 가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는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어린 시절에 읽은 전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구름과도 같았다. 그 당시 접할 수 있던 것으로서 ‘민족적’인 것은 그게 다였다. 한편 운명이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으나 알렉산드르 강은 시와 소설 창작을 시작하게 되고, 그 후 『고려일보』에서 일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마침내 “이 신문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문화적 영역으로 등장한 것이며, 이 신문사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나는 ‘고려일보’라는 기치 하에서 내 자신의 ‘한인으로서의 길’을 실행해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화가 고골의 ‘외투’로부터 성장한 것이라면, 러시아 한인 문학과 저널리즘은 ‘고려일보’의 외투로부터 성장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고려일보』에서의 일을 통해 “한인 세계 속으로의 진정한 몰입”을 할 수 있

28) 위의 작품. p. 18.

29) 논의되는 작품들은 『고려일보』(1991-1992), 소설집 『음력』(모스크바, 1990), 『한 줌의 대양』(알마아타, 송 시네마, 1992)에 실려 있다.

30) 강 알렉산드르, 「보이지 않는 섬」, pp.22-23.

31) 위의 작품. p.23.

32) 강 알렉산드르, 「귀가」, p.47.

게 되고, “한국혼(韓國魂)의 본래 모습과 그 내용”을 궁구하게 된다. 그동안 작가를 붙잡고 있던 중요한 문제, 바로 정체성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인데,³³⁾ 이는 다음 진술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가 주어진 기억과 사색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한인으로서의 길이란 바로 세계를 발견하는 길, 스스로를 발견하는 길,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의 동포들을 발견하는 길이되, 이는 오직 스스로의 혼과 얼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오직 스스로의 혼을 발견함으로써만 자민족의 운명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한인으로서의 하나의 운명과 한인으로서의 하나의 혼을 갖고 있으며, 한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고상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훌륭한 것이든 추한 것이든, 우리 삶이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 길은 우리가 개간하고 극복해야 하며,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파악할 필요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³⁴⁾

다른 수필 「42-절망의 문학으로부터 극복의 문학으로」는 2002년 제1회 ‘한국 문학 및 한국어 번역 서울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렉산드르 강은 여기서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한 그 나름의 결산을 밝히고, 재소 한인 문학을 통한 민족의 기억 발현에 관한 사색을 내보인다.

그리하여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 나의 세계는, 나의 부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계보, 나의 기원이 되는 땅에 대한 그리움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세계였다. 그러던 중 내가 속한 시대와 내가 속한 세대를 돌이켜 보고서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나도 모르게 경탄을 하게 됐다. 창조 작업을 행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확대하고 개발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즉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확고한 사실이 되어갔고,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한인 작가들이 존재한 이상,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이들이 쓰는 문학은 무슨 문학인가? 이 문학이 세계 문학의 어떤 양식 및 경향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학의 민족적 정체성은 어떠한가?’³⁵⁾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전통과 경향에 따라 글을 쓰는 재려 한인 작가 모두는 실존적 경험에 가장 잘 부응하고 있으며, 하나의 민족적 향수, 혹은 고향에 대한 열망을 다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속세의 것이든 예술상의 것이든 미래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다. 다가온 21세기와 제3 밀레니엄의 정신에 가장 잘 부응하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민족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점에 귀결된다. 민족성의 지수는 중편이나 장편에 등장하는 한인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민족적 속성이나 색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민족의 향수가 스민 세계를 작가가 보는 방법, 즉 자신의 관점이 든 남의 관점이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꿰뚫고 나오는 ‘태고의 상형 문자’에나 비교할 한 국적인 태고의 상징을 작가가 보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는 재려 한인 문학,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한인들의 문학은 핏줄이 계속해서 이어지듯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33) 강 알렉산드르, 「우리의 삶이자 운명인 ‘고려일보’」, pp. 50-53.

34) 위의 작품. pp. 54-55.

35) 강 알렉산드르, 「42-절망의 문학으로부터 극복의 문학으로」, p.60.

핏줄이 있으면 당연히 고향에 대해 향수를 품게 되며, 영원한 잊히지 않는 향수가 있으면, 이 향수를 한 줄의 시구(詩句)를 통해, 한 편의 소설 작품을 통해, 한 권의 책을 통해, 하나의 작가의 운명 속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갈망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갈망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³⁶⁾

알렉산드르 강은 중편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꿈」을 자신의 작품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다. 이 작품은 1994년 2월에 쓴 것인데,³⁷⁾ 작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이 세상의 변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벽지 마을에 살던 한 한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곳에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 즉 부모와 아들, 딸은 기쁨이 없는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그 어떤 다른, 진짜 삶 같은 아름답고 헛빛 찬란한 삶에 대해 꿈꾼다. 그들이 비극적으로 하는 생각처럼, 뿐만 아니라, 작가인 나도 하는 비극적인 생각처럼, 그러한 삶을 살 운명을 가지고는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사실 전에도 그랬듯이, 나는 이 작은 소설이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땅에 처하게 된,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진정한 정신적 탄생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해 온 재소 한인들 및 구소련 한인들의 실존적 존재를 가장 내용 있게, 가장 잘 정곡을 찔러 가며 어필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³⁸⁾

5. 나가며

러시아 한인 1세대 작가 대부분은 한인들이 러시아령 극동으로 이주한 데에 대하여, 강제 이주 시 겪은 나날들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나타난 한인촌들에 대하여 글을 썼다. 이와는 달리, 구소련 영토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민족의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과거를 테마로 삼는 이들이 많으며, 그들은 러시아 영토에 있는 한인 사회의 운명이나 차후 발전의 경로에 관한 사색을 담아내는가 하면, 재소 한인 문학을 고찰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나톨리 김과 알렉산드르 강과 같은 작가들은 자신의 자전적 소설 및 수필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며, 러시아 한인 사회의 역사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의 한인 사회가 생성된 역사와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러시아 한인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 모어가 되어 버린 러시아어로 작품을 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이 한국에 뿌리를 두는 작가로서 계속 남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아닐지언정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느끼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문화(유전적인)와 러시아 문화라는 두 문화의 혼합은 그들이 서양과 동양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방적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문화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특징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문학 창작의 소재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

최근 들어 해외에 사는 한인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해외 한인 사회의 활동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 한인 사회의 정신적, 예술적 가치 계승의 문제와 함께 그들의 민

36) 위의 작품. pp. 61-62.

37) 알렉산드르 강은 1994년 전까지 8편의 중·단편, 희곡 몇 편과 다수의 수필을 발표했고, 1999년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보던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장편 소설을 창작하려 시도하였다.

38) 강 알렉산드르,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꿈」, p.224.

족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필자 : 문학박사,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한국학과 교수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 아나톨리, 「나의 과거」, 『10월』, № 2, № 4, 1998.

Ким Анатолий. Моё прошлое. Повесть. Журнал "Октябрь". #2, #4. 1998.

http://world.lib.ru /k/kim_o_i/

김 아나톨리, 「나는 불사(不死)에 대해 쓴다」, 스베틀라나 루덴코가 청한 인터뷰.

Ким Анатолий. Я пишу о бессмертии. Материалы интервью, взятое С. Руденко.

강 알렉산드르, 「보이지 않는 섬」, 『드루쥐바 나로도브(민족 간 우애)』, 모스크바, 1994.10. ; 『고려일보』, 알마아타, 1993.2.: 'World Literature Today', Oklahoma, 3, 1996.

Кан Александр. Невидимый остров. Журнал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Москва, 10, 1994; "Корё ильбо", Алма-Ата, 2, 1993; "World Literature Today", Oklahoma, 3, 1996. http://world.lib.ru /k/kim_o_i/

강 알렉산드르, 「귀가」

Кан Александр.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http://world.lib.ru /k/kim_o_i/

강 알렉산드르, 「우리의 삶이자 운명인 '고려일보'」.

Кан Александр. "Корё ильбо": наша жизнь и судьба.

http://world.lib.ru /k/kim_o_i/

강 알렉산드르, 「42-절망의 문학으로부터 극복의 문학으로」.

Кан Александр. 42: от литературы отчаяния к литературе преодоления.

http://world.lib.ru /k/kim_o_i/

강 알렉산드르,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꿈」.

Кан Александр. Сны нерождённых. http://world.lib.ru /k/kim_o_i/

<논저>

한 V. S. 감수, 『10년 후-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한인문화센터연합 창설 제10주년에 즈음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한인문화센터연합, 타쉬켄트.서울, 2001년.

Хан В.С. Десять лет спустя: (к 10-ой годовщин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отв. ред. Хан В.С. Ташкент-Сеул, Узбекистан, 2001.

김 계르만 N. 「고려사람의 고백」,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Ким Г.Н. Исповедь корё сарам. http://world.lib.ru /k/kim_o_i/

<Abstract>

A Study on the Ethnic Identity of Russian-Korean Writers

- Focus on autobiographical novels by Anatoly Kim and Alexandr Khan

Inna Choi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thnic identity issues of Russian-Korean writers by examining autobiographical novels and essays by Anatoly Kim and Alexandr Khan, who we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Russian-Korean literary circles.

Most of the first generation Russian-Korean writers took interest in the lives of early Korean migrants that moved to the Maritime Province in the Far East within the Russian territory and settled down there, the history of harsh survival among Koreans forced to move to Central Asia, and the first Korean villag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embodying them into works. Unlike them,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 writers that were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old Soviet mainly created works on the topic of the past as part of the people's historical memory and had contemplation over the fate or future development path of the Korean society within the Russian territory in their works. They also analyzed the literature of Koreans living in Soviet and estimated its future directions. Such writers as Anatoly Kim and Alexandr Khan, in particular, discussed ethnic identity issues in their autobiographical novels and essays, highlighting that the Russian-Korean society had a very unique history not similar to that of any Korean society in other nations.

Most Russian-Korean writers use Russian, which is their mother tongue, to create and publish their works, but it does not pose an obstacle to their ongoing status as writers rooted in Korean along their own path. It does not hinder the way that they feel their ethnic identity in their subconsciousness even though they have a specific feeling about it. In a different viewpoint, the combination of two cultures, Korean(genetic) and Russian culture, allows them to have an open attitude both to the West and the Orient and further enriches materials for their literary creation by helping them compare different cultures and distinguish their characteristics clear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overseas continues to rise with Korea taking more and more interest in the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 society. Emerging as very important topics following these developments are the issue of spiritual and artistic value inheritance and that of ethnic identity among Koreans living overseas. It is thus required to conduct total and profound research on them.

Key words : Russian-Korean writers, Anatoly Kim, Alexandre Khan, autobiographical novels, ‘*My Past*’, ‘*Invisible Island*’, ethnic identity